

12월 농식품 해외시장동향 및 전망 [싱가포르]

1. 농림수산물 수입동향

□ 농림수산물 수입 통계

(단위: 천 싱가포르 달러)

구 분	1-11월 누계	
	금액	전년동기 대비(%)
농림축수산물	14,502,987	1.35
농 산 물	10,439,700	4.32
축 산 물	2,605,461	△5.01
임 산 물	94,929	△10.38
수 산 물	1,362,897	△6.20

자료 : IE Singapore Statlink 수출입통계자료 (11월 기준 자료)

- 싱가포르의 주요 식품수입국으로는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미국, 중국, 태국 등이 있음. 특히 말레이시아산 수입은 3,078,366천 싱가포르 달러로, 전체 비중의 약 21.3%를 차지함.
- 품목 중 식물성 추출물과 식물성 기름의 수입이 전년 대비 각각 45.45%, 71.73% 증가로 수입규모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주요품목 수입동향

(단위: 천 싱가포르 달러)

품목	'11.1~11	'12.1~11	증감%	1위		2위		3위		한국산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딸기	25,056	25,378	1.29	미국	12,616	대한민국	8,684	호주	2,030	8,684
사과	67,138	76,374	13.76	중국	27,360	남아공	16,779	뉴질랜드	14,084	739
단감	-	6,941	-	대한민국	2,007	남아공	1,165	뉴질랜드	950	2,007
배	-	31,233	-	중국	19,465	남아공	5,755	아르헨티나	3,191	100
맥주	148,198	160,570	8.35	말련	50,412	네덜란드	19,314	인도	15,707	8,197
커피조제품	127,333	127,770	△0.34	말련	59,089	인도네시아	15,778	브라질	13,580	2,916
인삼	13,843	11,650	△15.84	대한민국	2,972	캐나다	2,872	중국	2,311	2,972
라면	34,650	34,676	0.1	말련	12,369	중국	6,539	태국	4,577	2,694
음료	191,376	217,349	13.57	말련	116,118	태국	25,276	호주	11,886	1,150
김	6,143	5,786	△5.81	대한민국	2,232	중국	1,553	일본	1,007	2,232

자료 : IE Singapore Statlink 수출입통계자료 (11월 기준 자료)

- 한국산 농수축산물 수입액은 전체 120,660천 싱가포르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11% 증가했고, 껌련이 21,318천 싱가포르 달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로 식물성 기름, 식용 과일 및 견과류 등이 있음.
-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하여 판촉행사를 진행하여 신규 입점 품목이 크게 증가했으며, 소스류, 만두, 면 등의 가공식품 및 제과류, 주류, 음료 등 한국 식품 전반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판매가 증대됨.
- 현지 생산 조미 김의 한국산 원재료 수요증가 및 한국산 조미김 완제품 수입 증가로 작년 동기 371천 싱가포르 달러에서 2,231천 싱가포르 달러로 크게 증가 했음.

2. 이슈현안 : 쌀 수출국 순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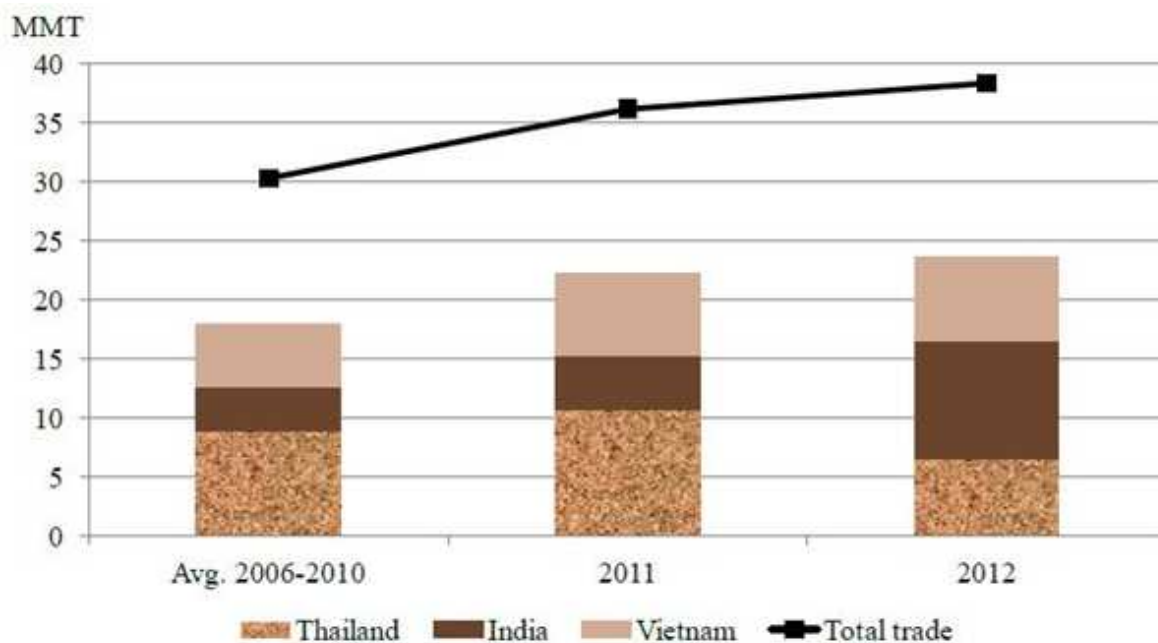
□ 개요

- 국제시장의 쌀 교역은, 2011년도에 사상 최고치인 3,400만톤을 기록한데 이어, 2012년도에는 또다시 3,800만톤을 기록하며 최고치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011년도 이전의 쌀 교역 연평균치는 3,000만톤 이하로, 현재의 쌀 교역량은 모든 전문가들의 전망을 초과하는 수치임.
- 이 가운데 2011년도까지 쌀 수출 1위 국가를 유지해오던 태국은, 인도 및 베트남의 추월로, 쌀 수출 3위 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 됨. 동 현상은 태국 정부의 잘못된 시장판단 및 무리한 선거공약준수정책에 따른 것으로, 태국은 쌀 재고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쌀 수출국의 순위 변화

- 연평균 3,000만톤대를 유지하던 국제 쌀 교역은, 2011년도에 3,400만톤이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더욱 증가된 3,800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됨. 동 현상은 쌀 수출억제를 시행해오던 인도가 자국의 과도한 재고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출에 나서고, 베트남의 작황이 호황을 누리면서 발생한 현상임.
- USDA는 인도 및 베트남의 적극적인 행보 그리고 태국의 판단 및 정책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2012년을 기점으로 태국이 쌀 수출 1위국의 지위를 내주고, 3위 국가로 전락하였다고 밝힘.

<국제 쌀 교역 물량 변화>



<출처 : USDA>

- 2011년 방콕발 “식량위기” 경고로, 태국은 2011년도에 쌀 수출물량이 1,000만톤을 초과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높은 가격이 확인한 품질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 유사품질에 낮은 가격을 내세운 인도 및 베트남이 2012년도 수출계약을 과점하면서, 태국은 2012년도에 쌀 수출 3위국가로 급락하였음.

□ 쌀 수출 주요국의 행보

- 인도, 베트남, 태국의 3국은 함께 수출물량 2,200~2,400만톤으로 전세계 쌀 수출물량의 6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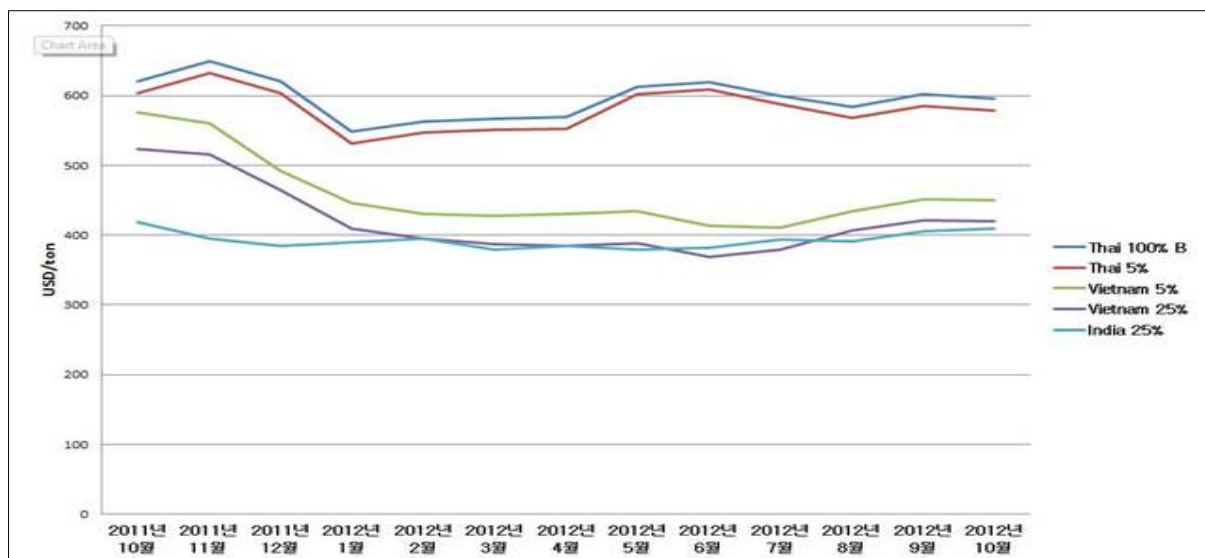
을 점유하고 있음. 이 중, 태국은 꾸준히 650~800만톤의 수출물량을 기록하며 굳건하게 1위 자리를 유지해왔음. 태국은 2011년말 자국에서 발생한 홍수사태를 국제사회에의 “식량위기” 경고로 전달하며, 긴장한 각국으로부터 주문량을 확보하여 2011년도에 수출 1,000만톤이라는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하였음.

- 그러나, 2012년 들어 태국이 경고한 “식량위기”가 발생하지 않고, 태국의 대농민 선거공약에 따라 쌀의 수매가 인상과 이에 따른 수출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쌀 수입 국가들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인도 및 베트남 등으로 발길을 돌림.
- 인도는 고대로부터의 교역 상대이었던 중동 및 아프리카 시장에 집중하며 2012년에 1,000만톤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으며 ; 베트남은 꾸준한 저가정책을 유지하며 중국 및 주변 ASEAN 국가들에 2012년 전체 765만톤을 수출하며 ; 650만톤에 머무른 태국을 추월하였음.

□ 시장 전망

- 인도는 2012년도 1,000만톤의 쌀 수출 이후에도, 추정재고 3,000만톤의 물량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자국의 경제부담 및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꾸준한 쌀 수출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베트남 또한 최대 경쟁국인 태국이 주춤하는 사이 수출시장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전망이 됨.
- 인도 및 베트남은 각기 주력하는 시장이 달라, 상호 경쟁관계는 아님. 인도 및 베트남 각각의 수출가격은 톤당 USD 430~450대로 유사하여, 톤당 USD 580~600대의 태국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인도 및 베트남은 모두가 태국의 수출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임. 태국측의 획기적인 품질개선 및 가격 재설정이 없는 한, 태국이 당분간은 수출국 1위의 지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됨.

<태국, 베트남, 인도 3국의 주요제품 FOB 수출가격 비교>



(출처 : Live Rice Index)

- 농민들의 적극적인 수매참가 활동으로 현재에도 약 1,000만톤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태국은 당장의 품질의 개선은 어려운 상태이며 ; 최근 3개월 사이 100여회의 해외수출촉진단을 파견하였음에도 실질적인 계약성사는 부진하여 향후 수출가격의 재설정을 생각해볼 수가 있으나, 이 또한 재정부담이 만만치가 않아 진퇴양난의 형국 임.

(출처: USDA, FAOSTAT, Bangkok Post, VNN, The Nation, ANN, Hindu Business Times, Live Rice Index,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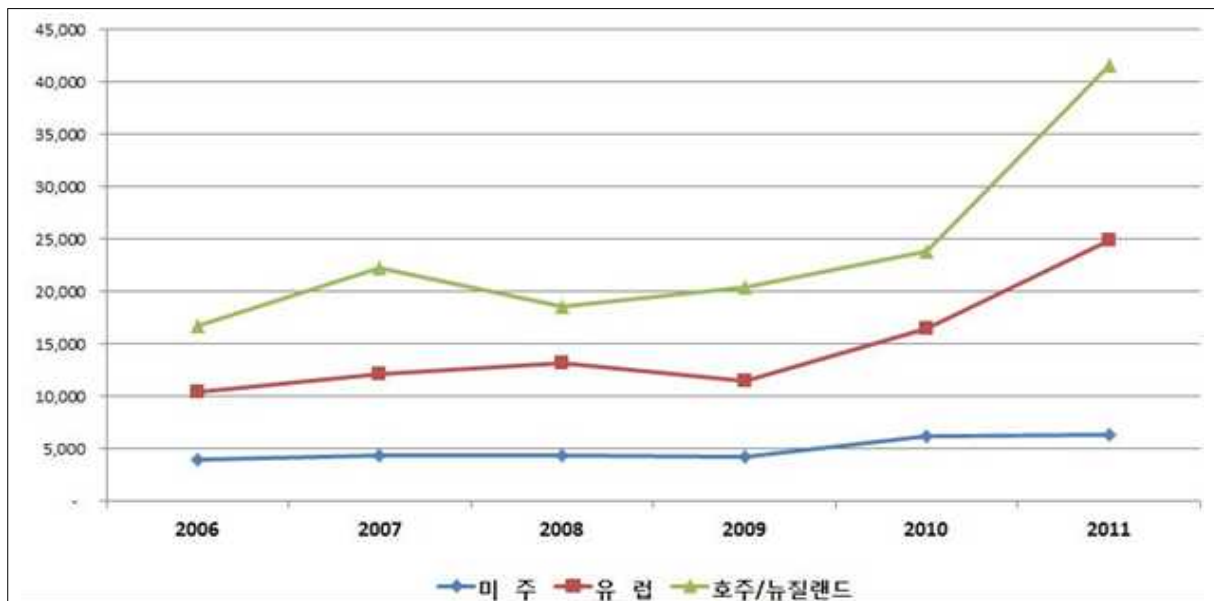
3. 품목 동향 : 말레이시아의 와인 시장

□ 개요

- 거대한 중국시장과 2008년 와인 및 맥주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 홍콩 등의 시장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미주 및 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소규모라고 여겨지는 동남아의 와인시장에 대해서 소홀히 함. 그 사이 호주 및 뉴질랜드가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대부분의 신규수요를 차지하면서, 동남아의 와인시장을 주도하게 됨.
- 말레이시아의 2011년도 와인 수입액은 USD79백만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56% 증가하였음. 이 중 호주/뉴질랜드산 와인 수입액은 USD42백만에 이르러 시장점유율 53%를 기록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말레이시아의 수입와인 원산지>

(단위 : USD, 천)



(출처 : GTA)

□ 말레이시아와 와인

- 말레이시아 총인구 약 3천만 중 61.4%를 점유하고 있는 말레이계 (회교도) 및 7.1%를 점유하고 있는 인도계 (힌두교)는 종교적인 이유로 알콜성 음료를 섭취하지 않음. 따라서, 인구 중 24.6%를 점유하고 있는 화교 (약 740만명)들을 중심으로 와인소비가 이루어짐.
- 화교들 또한 연령대별도 선호도를 달리하여, 노년층은 중국계의 “jjū”, “baijiu”, “mijiu” 등을 선호하며, 장년층은 향수가 어린 유럽산 와인을 선호하며, 젊은 층들은 가장 많이 홍보된 호주/뉴질랜드산 와인을 선호함. 특기사항으로, 화교들은 white wine은 여성용, red wine은 남성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임.
- 말레이시아의 와인시장규모는 다음과 같음. 소비 인구층 대비 매우 높은 약 8%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여왔음.

<말레이시아의 와인시장 규모>

(단위 : USD, 백만)

	2005	2007	2009	2011
전 체	82.5	98.7	111.8	124.8
Still Wine	67.5	82.7	95.7	108.5
Fortified Wine	6.7	7.6	8.2	8.8
Champagne 등	8.2	8.5	7.9	7.5

(출처 : Datamonitor)

□ 말레이시아 화교계의 주류 트렌드 변화

- 말레이시아 최대의 와인수입업체인 AsiaEuro Wines & Spirits사의 Adrian Loh 대표는, 회사매출의 90%가 와인제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말레이시아 화교들의 선호 알콜 음료 종류가 변화하였음을 밝힘. 노년층과 장년층은 익숙한 도수 높은 술을 여전히 찾지만; 유학과 여행 등으로 선진문화를 접한 젊은층은 도수 낮은 와인을 선호한다고 밝힘.
- Adrian Loh 대표가 밝히는 선호도 변화로는, 레스토랑 식사 중 도수 높은 전통주가 아닌 와인으로 반주하는 사례의 증가, 결혼식에 도수 높은 술이 아닌 와인이 선택되는 사례의 증가 등이 있음.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소재한 웨스틴 호텔의 지배인도 와인을 찾는 손님이 브랜드를 찾는 손님의 3배에 이르고 있다고 밝힘.

호텔의 와인제품 소개 	말레이시아 Wine Fiesta (2012년) 
호텔 식사 모습 	말레이시아 Mezza 9 와인부페 이벤트 

□ 시장 전망

- 말레이시아의 와인시장은 선호 알콜 음료의 변화에 따라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됨.

<말레이시아 와인시장 전망>

(단위 : USD, 백만)

	2012	2013	2014	2015
전 체	131.5	138.2	145.0	153.2
Still Wine	114.9	121.4	128.0	135.7
Fortified Wine	9.1	9.4	9.7	10.1
Champagne 등	7.4	7.3	7.2	7.4

(출처 : Datamonitor, StartAsia)

- 말레이시아의 와인판매량은 red wine이 약 74%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동 현상은 red wine이 남성용 와인이라는 인식 이외에, 건강증진효과가 높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됨. 또한, 중산층 이상에서 와인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면서 premium wine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출처: Datamonitor, GTA, Drinks Business, New Zealand Trade & Enterprise, StartAsia, The Star, Wine Australia)

“<저작권자 ©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kat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